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오푸스 앙상블·에라토 앙상블·현대음악앙상블 소리·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멤버, 수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 악보에 반응하는 법을 익혀라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번역 정지운 기자



©음악자널

악보를 처음 보고 읽는 것(초견)은 음악가들에게 특별하고도 중요한 경험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음악가는 이러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새로운 연습을 시작할 때, 챔버 앙상블에 합류하거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거나, 웨딩 축하를 연주하는 때 등...,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험이나 음악학교의 입학시험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보를 읽는 것은 매우 긴장되는 도전 혹은 회절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악보를 하나의 정글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떤 길을 찾아내는 한 명의 모험가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프랑스어로 '초견(déchifrage)'이라는 단어는 '해독'이라는 의미로 쓰인

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잘 읽혀지지 않는 기호를 분명한 하나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다. 악보를 큰 기호의 집단이라고 간주하고 복잡한 거리, 음·리듬·표현을 결정하며 악보 내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단 하나의 음을 내더라도,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감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가능한 한 정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첫 음에서부터 박자, 그리고 운율까지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곡가의 이름과 작곡된 시대, 곡의 성격들을 살펴보고 곡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도 연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심상에 음악을 뚜렷하게 새길 수 있는 방법은 음을 연주하기 이전에 앞서 테크닉적인 어



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 없이 연주하는 것이다. 좀 더 깊이 파고들수록 공통적인 형식, 반복부분과 서로 다른 멜로디 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곡의 구조를 파악하고 머릿속에서 음악의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이 과정은 사실 몇 분이 걸릴 뿐이다. 연주자 스스로 음악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자신감 향상에 좋다.

### 초건의 중요성

악보에 쓰여진 셀 수 없을 만큼의 기호와 많은 정보들(음표나 리듬뿐만 아니라 다이내믹과 아티큘레이션, 표현법까지)을 처리하고, 악보의 요구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중요도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은 연주자가 어떤 곡과 레퍼토리로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현대 레퍼토리에서는 음의 높낮이보다 소리의 반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때문에 연주자가 그 레퍼토리에 대한 첫인상을 기반으로 재빠르게 정확한 소리를 선택하는 능력이 곧 그의 책임감이 되기도 한다. 현악기로 따져보면, 활쓰기와 운지법을 좀 더 간소화시킬 수도 있다. 테크닉을 더 복잡하게 풀어내면 악보를 읽는 것은 좀 더 쉬워지기 마련이다. 솔로로 혹은 여럿이 함께 연주하는 경우, 악보를 읽는 동안 템포를 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악보를 읽는 동안에도 가능한 한 실제 연주에 선보일 템포로 연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때로 템포가 빠르거나 곡이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연주자 스스로 템포를 늦춰야 한다. 곡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는 곡 자체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중요음을 제외한 몇몇 음이나 패시지(passage)를 빼고 주어진 템포로 연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리듬적인 빠대가 흐려져서는 절대 안 되며,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된다. 연주를 계속하는 대신, 연주자 스스로 '이렇게 연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빠르기로 연주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사실 악기를 다루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빠르게 악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물론 악보에 나타나 있는 테크닉들은 다 다르게 생각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저 16분 음표와 같이 빠른 부분에만 먼저 손이 간다. 악보를 처음 보고 연주에 필요한 속도를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교본과 책에서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알려주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즉각적으로 빠른 음표들, 옥타브와 같은 부분을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소리낼 수 있는지 배웠다.

만일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경우에는, 연주할 곡을 들으면서 자신의 파트를 유심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어느 부분이 너무

느린지, 그리고 어떤 패시지를 미리 준비할 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듬의 정확성과 템포의 안정성은 함께 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도, 혹은 불가능하게도 한다. 마디의 구조에서 느낄 수 있는 리듬에 대한 강한 직감, 첫박을 느끼는 것과 리듬의 본질적인 구조들은 템포의 안정성을 가져오고 실수를 예방하기 때문이다. 지휘자들이 하듯, 악보를 손에 들고 한 손으로 박을 치면서 소리 내어 읽는 습관 또한 큰 도움이 된다.

### 악보에 빠르게 반응하는 법을 훈련하라

어떤 연주자의 경우에는 한마디(혹은 그보다 더) 앞서 악보를 미리 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유용한 방법이지만, 아직 음을 본 뒤에 연주하는 것에 익숙한 학생에게는 이 개념이 헛갈릴 수도 있다. 효과적인 연습방법은 원래의 템포를 유지하면서 매 마디의 첫 박만 연주하는 것이다. 마디의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눈을 동일한 템포 내에서 '연주되지 않은' 박자를 빠르게 훑어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이것을 편안하게 느끼게 되면, 그 마디의 한 박을 앞서 보며 연주할 수 있게 된다. 동작을 취하기 전에 미리 읽는 것에 뇌가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박을 느끼는 감각도 더욱 강해진다.

엄청난 기억의 소유자인 체스 마스터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들이 모든 상황에서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전 게임의 경험으로 다양한 상황과 연속적인 사건들에 대한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가의 경우도 이와 같다. 더 많은 레퍼토리를 가질수록 악보를 읽는 과정을 더욱 쉽게 해낼 수 있다. 레퍼토리가 늘어갈수록 무의식적으로 운지법의 다양한 조합, 리듬 형태, 화성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인지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연주자는 모든 상황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며, 말하자면 '본능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연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악보를 읽고 초견하는 법을 중요히 여기는 일이 드물다. 악보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지 악보를 읽는 것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악보에 반응하는 법을 익히는 동안, 악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다루고 민첩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또한, 연주자는 많은 작업을 거치면서 빈틈없이 연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연주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연습은 '매우 복합적인 목적의' 다른 수준의 레벨을 가진 게임으로도 볼 수 있으며, 지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고난도의 즐거움을 주는 훈련이 될 것이다. 바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 말이다.